

# 성인 된 안세영, 첫 무대에서 '값진 동'

### 태국오픈 배드민턴대회서 3위 한국 4강전서 고배...동메달 5개 19~24일 도요타 오픈 등 출전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새 에이스로 떠오른 안세영(삼성생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출전한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9위 안세영은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1000 태국오픈 4강전에서 세계랭킹 6위 카롤리나 마린(스페인)에게 0-2(18-21 16-21)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 최종 3위를 거뒀다.

안세영은 8강전에서 5위 랭타복 인타논(태국)을 2-0(22-20 21-12)으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인타논은 세계랭킹 5위다.

한국 대표팀은 이 대회 4강전에 단식 포함 5개 팀이 올랐으나 모두 패했다.

한국은 10개월 만에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동메달 5개를 수확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4위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은 세계랭킹 8위 그레이시아 폴리-아프리아니 라하유(인도네시아)에 1-2(21-15 15-21 16-21)로 역전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6위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도 세계랭킹 11위 중궐판 키티 타라쿨-라윈다 프라종자이(태국)와 접전 끝에 1-2(17-21 21-17 20-22)로 패해 결승이 좌절됐다.

남자복식 세계랭킹 8위 최솔규(요넥스)-서승재(삼성생명)는 세계랭킹 7위 리양-왕지린(대만)에 1-2(21-15 14-21 14-21)로 져 3위로 대회를 마쳤다.

혼합복식 세계랭킹 6위 서승재-채유정(인천국제공항)은 세계랭킹 3위 데차폴 푸아바라누크로-삼시리 타에랏타나차이(태국)에게 1-2(21-17 17-21 20-22)로 아쉽게 패했다.

대표팀은 지난해 3월 전역으로 이후 약 10개월 만에 국제대회에 나섰다. 금메달 사냥에는 실패했다.

대표팀은 계속 태국에 머물며 19~24일 도요타 태국오픈, 26~31일 BWF 월드 투어 파이널까지 연속해서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NBA 하든, 브루클린 데뷔전 트리플 더블로 화끈한 신고식

미국프로농구(NBA) 현역 최고의 슈팅 가드로 꼽히는 제임스 하든(32)이 브루클린 네츠 이적 후 첫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화끈한 신고식을 치렀다.

하든은 1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2020-2021 NBA 정규 리그 올랜도 매직과의 홈 경기에서 브루클린 유니폼을 입고 39분 47초를 뛰면서 32득점 12리바운드 14어시스트 4스틸을 기록했다.

하든과는 2011-2012시즌 오클라호마시티 센터 시절 이후 약 9년 만에 다시 한 팀에서 뛰게 된 케빈 듀랜트는 자신의 올 시즌 한 경기 최다인 42점을 몰아넣으며 하든의 성공적인 브루클린 데뷔전을 거들었다.

브루클린은 하든과 듀랜트의 활약을 엮어 올랜도를 122-115로 눌렀다. 최근 3연승 한 브루클린의 시즌 성적은 8승 6패가 됐다.

이번 올랜도전은 하든이 휴스턴 로키츠에서 이적한 뒤 처음 치른 경기로 관심을 끌었다.

다른 팀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던 하든은 최근 휴스턴, 브루클린 외에 인디애나 페이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까지 포함된 4각 트레이드를 통해 휴스턴을 떠나 브루클린으로 옮겼다.

하든은 새 동료들과 손발을 맞출 시간이 없었지만, 브루클린 구단 최초로 데뷔전에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아울러 하든은 NBA 역사상 새로운 팀에서 치른 첫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7번째 선수가 됐다.

하든은 전반에는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동료들의 득점을 돕는데 주력했다. 2쿼터까지 득점은 8점에 그쳤지만 7개의 어시스트를 배달했다. 특히, 84-83으로 한 점 앞선 채 시작한 4쿼터에서 듀랜트와 번갈아 득점을 쌓으며 브루클린이 리드를 벌려나가는 데 큰 힘이 됐다. /연합뉴스



호흡 척척 17일 라스베이거스 올리언즈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 피겨 스케이팅 챔피언십에서 오드리 루와 미사 미트로파노프가 환상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전반 7-11→후반 11-7...광주도시공사 '뒷심' 빛났다

### 핸드볼코리아리그 삼척시청과 18-18 무승부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삼척시청과 1무 1패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7일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3라운드 첫 경기에서 삼척시청과 18-18 무승부를 기록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승점 15점(6승 4무 5패)으로 리그 4위를 유지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삼척시청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하려했으나 무승부에 그쳤다.

삼척시청의 전술수비에 막힌데다 결정적인 찬스에서 골이 터지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는 올 시즌 최소 득점인 17점에 그쳤다. 강경민(5골)과 김

지현(5골)이 공격을 이끌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을 7-11로 마쳤으나, 후반 11-7로 전세를 뒤집고 승부의 균형추를 맞췄다.

후반전에서 7골 밖에 내주지 않는 수비력을 선보인게 위안이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5일 삼척시청과 경기에서 30-34로 고배를 마셨다. 강경민(14골), 정현희(5골), 김지현(4골)이 공격을 주도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연임

### "배구 통해 긍지 느끼게 할 것"

전갑수(60·사진) 광주시배구협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광주시배구협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통합)제22대광주시배구협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전 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전 회장의 임기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2021년 정기대의원총회일부터 2025년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 4년간이다.

전 회장은 ▲프로배구팀 유치 ▲생활체육전국대회 유치 ▲초등학교 복수팀 창단 ▲생활·전문체육 연계육성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초·중·고 육성학교 및 구배구협회 재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배구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시민들이 배구를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구선수수와 지도자 출신인 전 회장은 광주시체육회 이사, 한국실업배구연맹 부회장, 대한건기협회 부회장,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상임부회장·회장 직무대리 등을 역임하며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발전에 헌신한 체육인이다. 최근에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으로도 당선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 당선

### "신뢰받고 역동적인 연맹 만들 것"

제22대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에 피길연 전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57·사진)이 당선됐다.

피 당선인은 지난 16일 광주시산악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제22대 광주시산악연맹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2025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4년이다.

피 당선인은 재정자립도 향상 및 사무국 지원,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5개구 산악연맹 결성,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시민 등산교실 활성화 및 동호인대회 개최, 전문산악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약속했다.

피 당선인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산악인의 광주정신을 기르고 광주다운 광주산



악연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생활체육회와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후배님들과 광주시산악연맹을 소통·개방·교류를 통한, 함께하는 연맹, 신뢰받는 연맹, 역동적인 연맹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피 당선인은 현재 ㈜신한수산생산지 단체 대표 이사를 맡고 있으며 광주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WorldRecord #afrique



실내육상 세단뛰기 세계신기록을 세운 위그 장고(오른쪽)와 스승인 테디 탐고 코치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 게시된 탐고의 SNS. /연합뉴스

## 장고, 실내 남자세단뛰기서 스승 기록을 넘다

### 부르키나파소 첫 육상 세계신기록

위그 장고(29·부르키나파소)가 실내육상 남자세단뛰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장고는 17일(한국시간) 프랑스 푸드돔주 오비에르에서 열린 실내육상 오비에르 미팅에서 18m 07을 뛰었다.

종전 실내육상 남자 세단뛰기 세계 기록 17m 92를 15cm 넘어선 세계 신기록이다.

공교롭게도 종전 기록 보유자는 장고의 코치인 테디 탐고(프랑스)였다.

탐고는 자신이 2011년 세운 기록을 '제자' 장고가 10년 만에 경신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장고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썼다.

세계육상연맹은 "장고는 2021년 세계육상 첫 세계기록을 세웠다"며 "부르키나파소 선수가 세계기록을 세운 것도 최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장고는 마지막 6차 시가에서 18m07을 뛰었다. 실내경기에서 18m를 넘어서는 선수는 장고 단 한 명뿐이다.

장고는 2019년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7m66을 뛰어 동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적인 선수로 올라섰다.

그는 실내육상 세계기록까지 세우며 부르키나파소 육상의 새 역사를 썼다. 실외육상 남자 세단뛰기 세계기록은 조너선 에드워즈(영국)가 1995년에 세운 18m29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이엠하어
2관	#아이엠하어, 런
3관	빛의 아버지: 파이널 판타지 XIV, 도굴
4관	아이 엠 우먼
5관	늑대와 춤을, 빅풋 주니어2: 패밀리가 떴다
6관	원더 우먼 1984
9관	조제, 완벽한 가족
7관 세네카를	런, 신과함께-죄와 벌
8관 세네카를	미스터 존스, 이웃사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 국악상설공연

**창작공연 작품공모**

2021 광주국악상설공연 창작공연작품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국악공연에 관심이 있는 예술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1. 1. 11.(월) ~ 1.20.(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10:00 ~ 17:00)  
접수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  
문의 | 062-613-8379